

불 설 무 량 수 경 佛說無量壽經

법장비구 사십팔대원

法藏比丘四十八大願

오늘 이렇게 발원합니다.

오로지 무한생명 무한광명이신

아미타불의 드높으신 원(願)을 받들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삼보(三寶)님과

인연을 함께 하는 법우들이시여!

오늘 하는 저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날날이 증명하소서.

개경계 開經偈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뵈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어,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지이다.

법장비구 사십팔대원

法 藏 比 丘 四 十 八 大 願

1.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에는
지옥과 아귀와 축생이 없게 하겠습니다.

2.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는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3.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진금색(眞金色)이 되게 하겠습니다.

4.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한결같은 모습이 되게 하겠습니다.

5.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宿命通)을 얻어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알게 하겠습니다.

6.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천안통(天眼通)을 얻어서
위없는 부처님나라를 보게 하겠습니다.

7.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천이통(天耳通)을 얻어서
부처님들의 끝없는 말씀을
모두 받아 지니게 하겠습니다.

8.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타심통(他心通)을 얻어서
다함없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9.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신족통(神足通)을 얻어서 한 생각 사이에
가없는 부처님나라를 지나게 하겠습니다.

10.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자기 몸을 탐내지 않게 하겠습니다.

11.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부처님생명이 약속된 자리에 머물러
열반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12.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저는 부처님생명의 한없는 광명으로
모든 부처님나라를 비추겠습니다.

13.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저의 부처님생명은 수명이 한량없을 것입니다.

14.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에는,
한량없는 성문(聲聞)과 연각(緣覺)들이
있을 것입니다.

15.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참생명의 원에 따라서 수명을 길거나 짧게
자재(自在)로이 함을 제외하고,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없게 하겠습니다.

16.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어떤 나쁜 이름이라도 듣지 않게 하겠습니다.

17.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시방(十方)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칭찬할 것입니다.

18.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원해서
“나무아미타불!” 십념(十念)을 하면

저의 부처님나라에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역죄(五逆罪)를 지은 사람이나,
자신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임을
비방하는 사람은 스스로 제외됩니다.

19.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시방의 중생들이,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서 모든 공덕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해서 임종(臨終)할 때에는,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부처님생명으로 나타나겠습니다.

20.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를 흠모하는
시방의 중생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을 하면, 저의 나라에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21.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모두가 삼십이상(三十二相)을 갖추게 하겠습니다.

22.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에,
다른 부처님나라의 모든 보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일생보처(一生補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지의 수행을 뛰어넘어 곧바로
보현보살의 덕을 닦게 하겠습니다.
다만 최상의 바르고 참된 길을 가려는 보살은,
참생명의 원에 따라 자재(自在)하게 변하여
중생을 위한 큰 서원을 세워
공덕을 쌓아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부처님나라에 다니면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향하의 모래 수와 같이 무량한 중생들을
부처님생명으로 교화할 것입니다.

23.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서
모든 부처님께 한 끼의 공양을 올리는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나라에
두루 이르게 하겠습니다.

24.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은,
모든 부처님 앞에
그 공덕의 근본을 나타내고자 하는
공양물(供養物)을,
뜻하는 바대로 얻게 하겠습니다.

25.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은,
모든 지혜를 연설하게 하겠습니다.

26.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은,
금강역사(金剛力士)와 같이
단단한 몸을 얻게 하겠습니다.

27.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과
일체의 만물은 맑고 찬란하게 빛나며,
모습이 뛰어나고 지극히 미묘하여,
모든 중생이나 천안통을 얻은 사람의
이름과 수효를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28.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이나
공덕이 적은 사람들까지,
이 도량의 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높이가 사백만 리나 되는 것을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29.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은,
부처님의 경전과 가르침을 읽고 외우며
설명하는 변재(辯才)와
지혜를 얻게 하겠습니다.

30.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은,
지혜와 변재가 끝이 없게 하겠습니다.

31.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는 청정하여,
일체 셀 수 없는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세계를 비취 보는 것이,
마치 밝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듯이 하겠습니다.

32.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는,
땅으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이나 나무 등 일체의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보물과
백천 가지의 향기로 이루어지고,
드러난 장식은 기묘하여,
모든 인간세계나 하늘세계를 뛰어넘으며,
그 향기는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이 향기를 맡은 보살들은 모두
부처님의 행(行)을 닦게 하겠습니까.

33.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시방의 한없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세계의 갖가지 중생들이,
저의 광명(光明)을 받아,
그들의 몸에 접촉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인간과 하늘을 뛰어넘게 하겠습니까.

34.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시방의 한없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세계의 갖가지 중생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보살의 본래 부처님생명 자리와
갖가지 깊은 지혜를 얻게 하겠습니다.

35.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시방의 한없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세계의 여인(女人)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환희심으로 믿어서
즐거이 보리심을 일으키면,
목숨을 마친 뒤에
다시는 여자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36.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시방의 한없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는,
목숨을 마친 뒤에 마땅히 청정한 수행을 하여,
부처님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37.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시방의 한없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세계의 갖가지 중생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오체투지(五體投地)하며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환희심으로 믿어서 즐거이 보살의 행을 닦아서,
모든 하늘과 인간이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8.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옷을 얻고자 하면 생각에 따라 그대로 생겨서,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와 같은
참생명의 묘한 옷을 자연히 몸에 걸치며,
바느질이나 다듬이질이나 물들이거나
세탁할 필요가 없게 하겠습니다.

39.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번뇌가 없는 수행자와 같게 하겠습니다.

40.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이,
한없이 드러나는
시방의 부처님나라를 보고자 하면
뜻에 따라서 바라는 대로 되는데,
마치 밝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듯이 하겠습니다.

41.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부처님생명을 살면,
모든 몸의 기관들이 온전히 갖춰지게 하겠습니다.

42.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보살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모두 청정한 해탈삼매를 얻을 것이며,
이 삼매에 머물러 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이에,
한없이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삼매를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43.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다른 나라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목숨을 마친 뒤에 존귀한 집에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44.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다른 나라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기쁨에 겨워 펄쩍 뛰면서 보살의 행을 닦고
공덕의 근본을 구축하게 하겠습니다.

45.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다른 나라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한결같이 부처님생명으로 두루하는 삼매를 얻고는,
이 삼매에 머물면서 항상 한없이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을 뵈게 하겠습니다.

46.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제가 부처님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모든 보살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듣고 싶은 법문(法門)을 자연히 듣게 하겠습니다.

47.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다른 나라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자마자,
불퇴전(不退轉) 자리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48.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다른 나라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자마자,
본래의 부처님생명 자리에 이르고,
모든 부처님가르침에서
불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